

다산포럼



권순국 세명대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다산(茶山)의 큰아들인 정학연(鄭學淵, 1893-1859)이 유배지에 있는 다산에게 유배에서 빨리 벗어 나기 위해 “홍의호에게 편지를 해서 항복을 받고, 강준

“보내 준 편지 자세히 보았다. 천하에는 두 개의 큰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이롭고 해로운 기준이다. 이 두 개의 큰 기준에서 네

세상의 가치 기준인 시비와 이해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등급이 존재함을 말한 것이다. 요즘의 정치권에서 일어

오히려 두 번째 등급으로 옳은 길을 가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지만 정치적

시비와 이해의 기준에 따른 네 등급

강정기에 독립운동가들이 그랬고,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는 여기에 저항했던 수많은 정치인과 민주 인사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할 위기에 내몰렸으며, 김영삼 대통령도 수없이

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서 여러 번 소환 하더니 이제는 작정하고 잡겠다 버리고 있다. 과연 어

문제는 과연 사익(私益)을 얻었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검찰의 주장처럼) 김만배가 428억 원을 주기로

다산도 아들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죽이려 한다 해도

일을 가지고 절조를 잃어버려서야 되겠느냐. 비록 내가 절조를 지키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세 번째 등급도

반면 그릇된 길을 따라가 이익을 얻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대장동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또 어떤가? 건축업자 윤종천으로부터 받은 별장 성접대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고위직을 지냈다

기고



서관수 광주시선관위 홍보담당관

3월이 되면 따뜻한 봄기운을 받으며 피어나는 매화와 개나리, 유채꽃과 같은 화사한 봄꽃들이 주변을 물

이번 조합장 선거는 우리 지역의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이고 도시 지역보다

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조합원 비율이 높다 보니 공직 선거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듯하고 선거 분위

우리가 조합장 선거와 투표 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투표 참여’를 강조하지 않

조합장 선거의 투표는 우리에게 익숙한 공직 선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먼저 투표 시간은 오전 7시

예를 들면 서광주농협의 조합원은 서구에 설치된 세 개의 어느 투표소나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코

표수가 별도로 운영된다. 동구를 제외하고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각 한 개씩 총 네 개가 설치되고, 격리

조합장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선거 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단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역할이다. 우리 조합을 올바르게 이끌고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현명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투표할 거니까” “내가 투표 안 해도 누군가는 뽑히니

기고



이명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운영이 과연 방향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작년 10월 광주시의회

광주전남연구원 분리론의 근거는 세 가지다. 군 공항 이전과 나주SRP(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결국 둘로 나누고 각자 필요에 따라 연구하는 게 효율적인 연구 분리 운영의 요지다. 분리의 근거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한다고?

질문을 던져 보자.

첫째, 연구원 운영의 효율화 문제다. 효율화란 주어진 목표와 방향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점과 가치는

둘째, 광주·전남 경제권의 발전이다. 광주와 전남은 제조업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

셋째, 그렇다면 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광주전남 연구원은 광주와 전남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번영을 위

분리론의 허점이 불명하다. 도시와 농촌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도시형 문제와 농촌형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요즘 화두인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은 시군 단위에서, 광주 혹은 전남 혼자서 풀 수

마지막 질문. 광주전남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관계상 두 가지만 분명히 해 두

두 번째, 수탁 과제와 정책 과제의 수를 줄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수탁 과제는 과제가 팽이하며,

광역연구원 분리론에 대한 첫 생각은 ‘OMG’ (oh my god), 즉 ‘맘소사!’였다. 이번의 논란을 계기로 광

社說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이젠 민생에 집중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가까이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공개 소환 조사를 마쳤고 도주 위험이 없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

이 대표는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그들만의 리그’ 감감이 조합장 선거 언제까지

올해로 세 번째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본격화됐지만 과도한 선거 운동 제한으로 또다시 ‘감감이 선거’가 재현되고

다음 달 8일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200개 농협·수협·산림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전남은 182곳에서 새 조합장을

한데 후보자들 사이에선 얼굴을 알리기조차 힘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데 후보자들 사이에선 얼굴을 알리기조차 힘들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無等鼓

지난 주말 고교 동창 녀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막걸리도 한잔 곁들이기로 했는데 예전 정취가 담긴

주변에 묻고 인터넷 서핑을 통해 친구와 함께 찾는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곁들인 저녁 식사는 예전의 맛과는

대포 예찬

시대와 세대가 바뀌어 대포 예찬은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내에서 무리한 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반감이 큰 탓으로 보인다. 1년 가까이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세 차례 공개 소환 조사를 마쳤고 도주 위험이 없는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면서, 당론이 아닌 무기명 자유투표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런데 반대

경제와 안보, 민생이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검찰의 기소가 이뤄

문자메시지뿐이다.

이렇다 보니 조합장 선거가 조합 사정에 밝고 유권자와 접촉이 잦은 현직에게 유리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개되고 있다. 후보들의 손발을 꼼꼼히 묶어 놓은 위탁

여기에는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지난 2020년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태껏 법안 심사 소위원회 문턱

이렇다 보니 조합장 선거가 조합 사정에 밝고 유권자와 접촉이 잦은 현직에게 유리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개되고 있다. 후보들의 손발을 꼼꼼히 묶어 놓은 위탁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